가을의 시골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자연과 대화로 가을이 익고…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골에 가는것이 나의 생활에 한 부분이 되었다. 시골을 향할때면 언제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앤돌핀'이 여기저기서 막 솟아오르는 듯 하다.

시멘트벽에 갇혀 숨막히게 허덕거리다 달려간 시골에서의 풀내음, 지저귀는 새,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고 나를 반기는 야생화 밤에만 활짝피는 박꽃과 달님의 어울림은 도심의 생활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화의 나라'가 되어 바로 내눈앞에 펼쳐진다.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 나도 모르게 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깜짝 놀란다.

한알의 씨앗이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연의 아름다움앞에서는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두분은 기독교신자이고 한분은 독실한 불교신자 이신 시집쪽의 세형제분을 모시고 시골을 갔다. 이때 허물을 벗은 뱀의 껍질이 왼두막 바로 천장위에 매달려 있었다. "뱀이야"하고 소리를 지르니 불교신자이신 시이모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면 안된다"하시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계속 불경을 외우시며 "모든 것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함부로 말씀을 못하게 하셨다. 절에가면 행주를 삶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이제 가을이다. 모든 풀, 나무, 하물며 돌까지도 파란 하늘 아래서 나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나를 반기는 것 같다.

가을의 자연앞에서 사람들만이 서로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인간못지않게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와 예의가 있는 것을 느낀다. 자기만 잘나서 잘사는 것 같은 물욕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교훈이 바로 자연과의 대화인것 같다.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모든 자연앞에 숭고해질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나는 자연의 숨결을 들려주고 싶다.

손희옥 〈서양화가〉

주부신행담

작지만 큰 행복 ㊦

남편의 사업실패는 우리가족에게 또다른 커다란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사업실패로 인해 전에 살던 집에서 전셋집으로 자리를 옮겨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을 때였다.

어느날 뜻하지 않게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그때 나는 넷째 아이를 임신중이었고 더구나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차였다. 당연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넷째 아이는 그로 인해 유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불행은 서곡에 불과했다. 그렇게 자상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가스중독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일이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다. "우리 어머니 극락왕생하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지만 마음으로 비는 것으로만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한이 풀리지 않았다. 방 한켠에 빈소를 모셨다. 그리고 공양 올릴 때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이것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는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꺼려하던 아이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반야심경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장남은 지금 육군대위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다. 3사관학교에 가기전까지 막노동에 포장마차에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이런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내 위로에 그 녀석은 늘 이렇게 말했다. "아들한테 미안한게 어디있어요. 스님말씀대로 우리 가족은 모두 동업중생인데요."

또 둘째 딸아이는 장남이 군인이라서 결혼식을 대구 2군사령부 법당인 두열사에서 올릴 수 있었는데 이때처럼 내가 부처님 품안에 있다고 느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막내 아들녀석도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 어려웠던 집안살림에서도 구김살 없이 자기의 몫을 살아가며 이만큼 성장한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 모두가 부처님을 믿고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피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희들은 항상 어디엘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남을 이기고 출세하라는 말은 아니다. 누구에게든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

사노라면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고 마음에 상처도 입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내가 전생에 큰 빚을 졌구나'라고 생각하며 선업을 이승에서 다 짓고자 독경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같은 어려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다.

결혼한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렇토록 자랑스럽게 장성한 아이들과 한때는 이겨내기 힘든 고난에서 지금은 건설회사의 어엿한 중견간부가 된 남편은 더러는 얼룩도 졌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한 편의 내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지금까지 식구 누구하나 병원출입을 해본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부처님께 더없이 감사드린다.

사노라면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고 마음에 상처도 입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내가 전생에 남에게 큰 빚을 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전생에 조금밖에 짓지 못한 선업을 이승에서 다 짓고자 독경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모든 기도와 정성은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에 서서히 원력이 되어 다가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 부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어떤 위기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희망이고 심적 위안일 것이다.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나는 부처님께 편안히 기댈 수 있었고, 그 믿음은 어려운 생활을 차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을 주었다. 또 사고를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또한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어온데 따른 흔히 말하는 신앙심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부처님은 내게 바로 이런 소중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셨으니 어찌 이것을 작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행하며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불자님들 성불하세요.

이 영명화 (대구시 중구 삼덕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⑪

♦ These(Pleasures are) to me calamities, boils, misfortunes, diseases, sharp pains, and dangers ; seeing this danger(originating) in sensual pleasure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이런 감각적 즐거움은 나에게 있어 재앙이며, 불쾌이며, 병이며, 극심한 고통이며, 하나의 위험이다. 이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Both cold and heat, hunger and thirst, wind and a burning sun, and gad-flies and snakes - having overcome all these thing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바람과 태양의 열기, 모기떼와 독사들, 이런 것들을 능히 참고 견디며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As the elephant, the strong, the spotted, the large, after leaving the herd walks at pleasure in the forest, even so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힘센 얼룩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노닐듯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For him who delights in intercourse (with others, even) that is inconvenient which tends to temporary deliverance ; reflecting on the words of (Buddha) the kinsman of the Adikka family,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모임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잠시도 영혼의 휴식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예(부처)가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adikka : 해, 태양 (빠알리어)
'kinsman : 남자친척
'calamity (지진, 홍수등의)재난, 참화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펀다 그랜드침대

•본사: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전화:0348-945-2233/팩스:0348-945-9607

생활속의 불교 ㊷

흙 냄새 모르는 영원한 올챙이

순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모여 앉아 험난했던 길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의 길은 길이 아니다. 오직 열반에의 길만이 길이다."

진리의 길, 그것은 열린 마음의 길이다. 고정관념이라는 철벽을 친 뒤에나 보이는 길이다. 마음을 비워야 볼 수 있는 길이다. 마음이 닫히면 길도 막힌다.

선입견·편견·소견으로 꽉 들어찬 마음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수행을 한다 해도 길은 보이지 않는다. 닫힌 마음으로는 결코 길을 볼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마을의 길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형상에 집착해 온갖 관념으로 가득한 머릿속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일러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길은 본래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길은 훤히 뚫려 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함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까닭은 우리 자신이 장님인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 사물을 대할 때 '자기'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그러기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 되고 만다.

코끼리를 놓고 벽 같다, 기둥 같다, 뱀 같다 라며 서로 우겨대는 장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웅덩이 속의 올챙이가 개구리에게 물에 대해서 물었다. 물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이고 흙 냄새는 어떻더냐고 물었다. 개구리가 제주껏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올챙이는 그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물에 대해 상상은 할 수 있어도 흙 냄새를 알 수는 없는 법이다.

올챙이가 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꼬리 떼고 다리가 생겨 제발로 웅덩이를 벗어났을 때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골백번 듣는다 해도 스스로 마음을 열고, 비우고, 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길을 볼 수는 없다. 물론 길을 상상할 수는 있다. 지도를 펴놓고서 백두산도 가고 중국·인도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길은 스스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갈 수 있는 길로 다가선다.

남이 일러준 길은 길이 아니다. 상상의 길일 뿐 실제의 길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가득한 경전은 다만 지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보는 실제 상황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이라는 철통을 깨는 방법으로서만 가능하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중대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른다면 어디 가서 불법을 찾았다 할 것이며, 어디 가서 길을 발견했다 하겠는가. 스스로 행함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한 마디도 설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가장 길다운 길, 자유의 길, 진리의 길, 해탈의 길은 닫힌 마음을 여는 데서, 고정관념을 비우고 천진의 눈·귀로 사물을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 길을 찾으려거든 한생각 돌려서 덕지덕지 달라붙은 고정관념부터 떼어내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자기'라는 관념에 매달려 제 좁은 소견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보람 있게 사는 길이라 믿는다면 길은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이다.

끝내 흙 냄새를 맡아보지 못하고 올챙이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협찬 : 지용권, 김종숙, 지은희, 최순근, 황종호, 홍리장